

광주일보

Weekend

제1802호 2판
2008년 3월 29일 토요일



카니발

〈김동률〉

추억 속의
명콤비들
돌아온다

이련한 추억으로만 기억했던 명콤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들은 세월이 흘러도 전
혀 녹슬지 않은 관록을 보여주고 있어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더 블루

〈손지향〉 〈김민종〉

1986년 '쇼 비디오자키'(KBS)에서 아프리카 원주민 화장을 하고 '시커먼스'를 외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개그맨 이봉원과 장두석이 다시 등장한다.

붐 프로그램 개편에 맞춰 '웃찾사'(SBS)를 통해 본격적인 개그계 복귀를 앞두고 있는 것. 당시 이봉원은 '동작그만'에서 '곰팡이'로 장두석은 '부채도사'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었다.

이미 지난해 '스타 골든벨'(KBS)에서 '끼쳤으면'의 이수근, 정명훈과 함께 깜짝 무대를 선보여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터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이들은 개그 아이템 구성 중에 있으며 후배 개그맨들과 본격적인 대결을 앞두고 각오를 다지는 중이다.

90년대 초·중반 최고의 청춘 스타였던 김민종과 손지향도 프로젝트 듀오 '더 블루'로 돌아올 예정이다. 당시 연기자 및 가수로 인기 정상을 달렸던 이들은 지난 1992년 '더 블루'를 결성, '너민을 느끼며' 등을 발표해 가요계 정상을 차지하는 등 10대 소녀들의 우상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손지향이 예전 히트곡들을 재현곡한 베스트 앨범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 블루'가 재탄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05년에 폐지됐던 '수요예술무대'(MBC)에서 공동 MC로 8년 동안 호흡을 맞췄던 이현우와 김광민은 3년 만에 재회한다. 오는 5월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서울 재즈 페스티벌 2008' 첫날 무대에 나란히 선다.

지난 21일에는 어쿠스틱한 멜로디와 아름다운 화음을 발표해 가요계 정상을 차지하는 등 10대 소녀들의

김동률이 '윤도현의 러브레터'(KBS)에 함께 출연,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들은 음악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땐 그랬지', '거위의 꿈' 등 카니발 시절 히트곡을 열창해 방청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아직의 텐션클럽'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이적은 '다행이다' 등으로 지난해 음악팬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았으며, 얼마 전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반상을 비롯해 4관왕을 석권했었다.

김동률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의 대형공연을 준비 중이며 올해 최고의 음반 판매량(3월 현재 7만장)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고교생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70년대 하이틴 영화의 알개 시리즈 주연인 김정훈, 진유영, 이승현이 '네버엔딩 스토리'(MBC)에서 30년 만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 월드 팬들을 감동에 젖게 했다.

진유영은 영화감독, 대학교수 등으로 변신을 해 꾸준히 영화인의 길을 걷고 있고, 고마 신랑으로 팬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김정훈은 사업가로 변신, 바쁜 일상 을 보내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박행·편집·인쇄인 金煥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榮

대표전화 2200-551-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2200-551-222-8111
대표팩스 222-4918 (팩스 222-9005)
편집부 2200-629 광고마케팅국
정치부 2200-616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문화정보국 2200-541
사회부 2200-619 〈팩스 222-0195〉
〈팩스 227-0118〉 독자서비스국
문화생활부 2200-626 2200-551
여론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시진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본사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오경을 준수합니다



“체력 달려 힘들었지만 인생 활력 얻었죠”

아침드라마 '그래도 좋아' 김지호

“인생의 활력을 얻었어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작품입니다. 촬영하면서 젊은 것은 체력뿐이에요.”

지난해 10월부터 MBC TV 아침드라마 '그래도 좋아'에 출연하며 숨기쁜 스케줄을 소화해 온 김지호(34)는 이제야 한숨 돌리는 표정이었다.

시청률이 20%를 훨씬 웃돌며 아침드라마 가운데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데다, 4월 초 종영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내가 출연한 작품 가운데 가장 열심히 촬영한 드라마라고 자부해요.

촬영이 있는 날이면 두 시간 전에 미리 세트장에 와서 동선을 외우는 등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가 이 드라마에서 맡은 캐릭터는 숱한 고생을 겪으면서도 꽃꽂음을 잊지 않는 신발 디자이너 역이다.

“밖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안으로 참고 누르는 연기가 많았어요. 섬세한 감정 표현 연기에 욕심을 냈습니다. 깊이 있는 연기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체력이 부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운전 중 접촉사고로 부상 했고, 최근에는 링거를 맞기도 했다.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고 후에는 목 근육을 움직일 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드라마를 찍으면 광고에도 많이 출연했다. 재미있는 것은 국민연금 홍보광고,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홍보광고 등 대부분이 공익적 성격의 광고였다는 점이다.

“드라마 캐릭터가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는 인물이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런 광고 제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좋은 엠바서더의 이미지와 함께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드라마 출연 전 연극 '2007 클로저'에 출연한 바 있는 김지호는 6~7월께 다시 연극무대에 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황산·장가비

한국 대립의 뿐만 아니라 황산과 거란, 청나라, 그리고 일본을 통한 황산의 있는 MBC 드라마입니다.

무안 황산·장가비		무안 장사 홍가에	
2008년 4월 17일 ~ 5월 19일			
2008년 4월 17일 ~ 5월 19일			
2008년 4월 17일 ~ 5월 19일			

■ 문화 226-6070